

碩士學位請求論文

小說에 나타난 運命觀의 對比 研究

－『黃土記』와 『먼 그대』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安 成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韓 政 錫

1997年 2月

小說에 나타난 運命觀의 對比 研究

— 「黃土記」와 「먼 그대」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安 成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1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韓 政 錫



韓政錫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1月 日

審査委員長 朴 如 可
審査委員 文 聖 洙
審査委員 安 成 洙

小說에 나타난 運命觀의 對比 研究

— 「黃土記」와 「먼 그대」를 중심으로 —

韓 政 錫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安 成 洙

이 논문은 김동리의 「黃土記」와 서영은의 「먼 그대」에 나타난 대립적이고, 보완적인 운명관을 작품 구조와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밝혀 내는데 목표를 두었다.

1. 「黃土記」

이 소설의 플롯 구조는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프롤로그와 그것을 서사적 이야기로 형상화한 내부 이야기가 결합되어 '비극적 운명 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욕망 구조는 주인공 역쇠와 득보로 대표될 수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욕망은 자신의 천부적인 힘을 마음껏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어하는 공통성이 있으나, 둘 다 성취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난다. 또한, 이 소설은 어떤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비극적 운명'과 허무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맺게 되는 등장인물들의 좌절된 삶을 통하여, 인간의 '비극적 운명관'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2. 「먼 그대」

이 소설의 플롯 구조는 주인공 문자가 본능적인 욕구를 지닌 '현실적 자아'와 그것과 정면 대결을 펼치는 '내면적 자아'와의 갈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이상적 자아'의 세계로 초월해 나간다는 '변증법적 정신 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욕망 구조는 '이상적 자아의 실현'을 꿈꾸는 문자의 욕망이 주로 나타나면서, 부수적으로 '현실적 욕망의 달성'을 바라는 한수의 욕망이 그려져 있다. 또한, 이 소설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려는 주인공 문자의 자기 초극정신을 통하여, 인간의 '낙관적 운명관'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3. 小說에 나타난 運命觀 對比

「黃土記」의 주인공 역쇠는 비범한 인물로 자신의 불운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나,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타고난 운명의 굴레에 순응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반면, 「먼 그대」의 주인공 문자는 고통스런 현실과의 정면 대결을 통하여,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전자의 의미구조가 '순응적 운명관'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대결적 운명관' 보여준다.

그리고 작가 서영은은 김동리의 「황토기」를 읽고, 개인적인 화답의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이 「먼 그대」라고 밝혔는데, 그 화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두 운명관에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이 두 운명관은 '작가와 독자', '독자와 작가', 또는 '작가와 작가'의 관계 속에서 소설을 통해 주고받는 '문학적 화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차 례

<國文抄錄>

I. 緒 論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5
II. 「黃土記」와 「먼 그대」의 作品 分析	7
1. 「黃土記」의 運命 構造	7
1) 플롯 분석	7
2) 인물의 욕망 분석	16
3) 주제 분석	20
2. 「먼 그대」의 運命 構造	22
1) 플롯 분석	22
2) 인물의 욕망 분석	30
3) 주제 분석	33
III. 小說에 나타난 運命觀 對比	35
1. 受容的 運命觀과 對決的 運命觀	35
2. 運命觀을 통해서 본 和答의 意味	40
IV. 結 論	43
參考文獻	46
Abstract	48

구조도 · 분석표 차례

【구조도】

1. 「黃土記」의 의미 생성 체계	14
2. 「黃土記」의 주제 수렴 체계	20
3. 「먼 그대」의 주제 수렴 체계	33

【분석표】

1. 「黃土記」(역쇠)의 욕망 체계	16
2. 「黃土記」(득보)의 욕망 체계	17
3. 「黃土記」(분이)의 욕망 체계	18
4. 「黃土記」(설회)의 욕망 체계	19
5. 「먼 그대」 주인공(문자)의 '자아' 발전 양상	28
6. 「먼 그대」 주인공(문자)의 '자아' 변모 과정	28
7. 「먼 그대」(문자)의 욕망 체계	31
8. 「먼 그대」(한수)의 욕망 체계	32
9. 「黃土記」와 「먼 그대」의 운명관 대비	40
10. 소설적 화답의 구조	41

I. 緒 論

1. 연구 목적

金東里의 「黃土記」와 徐永恩의 「먼 그대」는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운명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설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운명관의 구조를 작품구조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소설 속에서 두 운명관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는데 목적을 두면서, 아울러 두 작품의 대비 연구를 통하여 작중인물들의 운명관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김동리는 인간의 운명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여 온 작가이다. 그가 처음 발표한 「山火」(1936)에서 시작하여 「黃土記」(1937)를 거쳐 「까치소리」(1966)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선은 집요하리만큼 어떤 운명의 골짜기를 뒤쫓고 있음¹⁾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작품군들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사랑과 운명의 문제를 다룬 작품, 민족과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 그리고 신과 인간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분류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그가 인간의 '운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논문의 텍스트로 활용될 「黃土記」 역시 첫 번째 작품군에 해당하는 '운명의 문제'에 초점을 둔 작품²⁾이다.

한편, 서영은의 단편 「먼 그대」는 주인공 문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가 자신의 '내적 싸움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³⁾ 이 싸움은 절대적인 '어

1) 李甫永, "蓮花의 秘義", 「東里文學研究」, 서라벌文學 8집(서울: 서라벌藝術大學, 1973), p. 108.

2) 金東里, 「文學思想」, 創刊號(서울: 文學과 思想社, 1972), p. 264.

떤 존재'와의 정면 대결을 통하여 승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내적 자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주인공 문자가 '어떤 존재' — 주인공 '운명'을 지배하는 상징적 실체 — 와의 대결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은 곧, 작가 자신의 '운명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黃土記」와 「먼 그대」라는 두 작품의 대비 분석을 통하여, 김동리와 서영은이 형상화해 낸 두 '운명관'의 실체를 밝혀 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사 검토

김동리 문학 세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주로 1930년대라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작가의 현실 인식이나 시대 의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경향이 짙다. 즉, 그의 작품 세계가 한국의 토속적, 민속적인 제재를 선택하여 인간의 본질적 측면을 깊이 천착한 작가로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작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와는 달리 현실을 도피한 역사 부재의 문학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만만치 않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먼저, 前者의 경우와 같이 김동리의 작품 세계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대표적인 이는 조연현과 김병익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조연현은 '東里 문학은 허무적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⁴⁾, 또한 한국적인 작가이면서도 인간 구원이라는 세계적 관심사에 부합하는 작품을 썼기 때문에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작가⁵⁾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서영은, 「한 남자를 사랑했네」(서울: 미학사, 1993), p. 48.

4)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概觀」(서울: 正音社, 1964), pp. 279-280.

5) _____, 「韓國現代作家論」(서울: 文明社, 1970), p. 57.

반면, 後者의 입장을 취한 이는 김우중, 전규태, 정한숙, 천이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김동리의 문학 세계를 냉철하게 지적한 이는 김우중으로, 그는 이 작가의 작품을 '현실 사회로부터 태고의 신주를 모신 신당 깊숙한 곳으로 도피한 문학'이라고 하면서, 탈역사주의 문학이라고 비평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김병익은 '도피가 아니라 친화'라는 말을 함으로써, '복고성이 오늘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면 오히려 보다 현대적일 수 있다.'⁶⁾는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규태는 '김동리에게는 약간의 미흡한 현실 감각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인간성의 옹호라는 그의 문학이 토속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민족 감정을 흡수 발전시키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⁷⁾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정한숙은 김동리의 초기의 작품을 보고 '迷信文學, 逃避文學의 성격을 띤다.'⁸⁾고 꼬집었다. 그리고 천이두는 '詩情과 고유한 한국적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의 명제, 즉 오늘의 현실, 오늘의 고민이 없음'⁹⁾을 지적하여 김동리 문학 세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작가 김동리에 대하여 문학사적 자리 매김과 관련된 평가 외에, 작품들의 주제적 가치를 밝히려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즉, 김동리의 문학적 성격을 '토속적 소재가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향수'¹⁰⁾, '소멸의 미학'¹¹⁾, '순수 문학 시대에 있어서 그 이론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한 대표적인 문학이며 그

6) 金字鍾, 『韓國現代小說史』(서울: 宣明文化社, 1968), p. 271.

7) 金炳翼, 『韓國文學의 意識』(서울: 同和出版公社, 1976), p. 190.

8) 全主泰, 『韓國現代文學史』(서울: 瑞文文庫, 1972), p. 348.

9) 鄭漢淑, "顯微鏡과 돋보기: 金東里 短篇小說에 대한 考察", 『東里文學研究』, 서라벌文學 8집(서울: 서라벌藝術大學, 1973), pp. 51-67.

10)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서울: 螢雪出版社, 1975), p. 123.

11) 송백현, "토속신의 미학과 원색적 인간상", 『東里文學이 韓國文學에 미친 영향』(서울: 中央大學校 藝術大學 文藝創作學科, 1979), pp. 90-98.

12) 김치수, "소멸의 미학: 金東里의 「巫女圖」", 『文學과 批評의 構造』(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4), pp. 90-96.

기법에 있어서도 비교적 우수한 편¹³⁾, ‘신비스러운 운명 의식’¹⁴⁾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의 작품의 본질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리고 문학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작품 자체의 형식 및 형성 원리를 밝히려는 시도로서, 천이두는 김동리의 작품을 ‘한국적 고유성이 짙게 부각되면서도 근대 소설로서의 입체적 짜임새를 동시에 갖춘 문학적 공간’¹⁵⁾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김동리의 문학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토착적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궁극적인 모습을 이해하려 했던 끈질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⁶⁾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黃土記」에 대한 평가 역시 ‘신비적, 토속적, 원시적인 향수 속의 허무 의식’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는 ‘運命觀’에 대하여 세밀한 작품 분석이 미약하고, 특히 그것을 ‘작가의 운명관’과 결부시켜 논의된 경우도 극히 드문 실정이다.

한편, 서영은에 대한 연구는 김동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양과 질적으로 극히 떨어지는 편이며, 단지 간단한 논평들만 찾아볼 수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일상적 삶 속에 허위 의식이 약간이라도 끼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상적 삶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버리는 완고함을 본질로 한 것, 그것이 서영은의 세계’¹⁷⁾라고

13) 金宇鐘, “金東里와 순수문학의 지향”, 『韓國現代小說史研究』(서울: 민음사, 1984), p. 358.

14) 千二斗, “토속적 상황 설정과 한국 소설”, 『韓國小說의 觀點: 천이두 평론집』(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p. 35.

15) _____, “虛構와 現實(上), 金東里論”, 『現代文學』, 9월호(서울: (株)現代文學, 1978), p. 245.

16) 권영민, “아! 김동리 선생님”, 『文學思想』, 통권 273(서울: 文學과 知性社, 1995), p. 314.

17) 김윤식, “서영은론: 허무를 실천하는 섬세한 촉수”, 『한국현대작가연구』(서울: 文學과 知性社, 1991), p. 392.

하는 것과, '道는 不立文字'의 세계, 서영은이 추구하는 세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간절한 갈망의 연속으로 실재없이 향하는 것일 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¹⁸⁾ 정도의 평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텍스트로 활용될 「먼 그대」 역시 아직까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소설 또한 '작가의 운명관'과 관련시켜 연구한 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초점은 「黃土記」와 「먼 그대」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운명관을 탐색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두 작품 속에 내재한 '작가의 운명관'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상호 대비해 보는데 있다.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黃土記」와 「먼 그대」가 보여 주고 있는 '운명관'의 구조와 의미를 밝혀 내기 위해서는 우선, 두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구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은 유기적 구조물인 만큼, 소설의 미적 가치를 논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그 작품의 구조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품에 대한 체계적 구조 분석을 통해서만이 주제의 의미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¹⁹⁾

따라서 이 논문은 「黃土記」와 「먼 그대」의 플롯, 인물, 주제에 관하여 형식주의와 구조주의 및 기호학의 방법을 원용하여 연구하되, II장에서는 두 작품을 개별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 III장에서는 통합적 차원에서 대비 분석해 볼 예정이다.

18) 방인태, “徐永恩論(1): 神話的 세계의 갈망”, 『韓國現代作家研究』(서울: 민음사, 1989), p. 328.

19) 진영화, “김동리 단편소설의 구조적 의미”(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p. 3.

즉, 대비의 방식에 있어서, 전자는 '일괄 대비'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 후자는 '요목 대비'의 형식²⁰⁾을 취하게 된다.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II장에서는 세 개의 분석 층위로 나누어 유기적으로 두 텍스트의 의미구조를 탐색하게 된다. 즉, 우선 (1) '플롯의 분석'을 치밀하게 탐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다시, 의미망 분절과 기능탐색 및 명명작업, 플롯의 유형 등의 분석 방법이 사용된다. 다음은 (2) '인물의 욕망 분석'을 시도하여 작중인물들이 보여주는 운명관의 성격을 해석해 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 '주제 분석'에 들어가서는, A. J.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에 나타난 仲裁者 概念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품의 중심 의미를 운명관과 결부시켜 해석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II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黃土記」와 「먼 그대」에 나타난 운명관을 총체적 관점에서 대비해 볼 계획이다. 즉, 두 작품의 (1) '運命觀 對比'와, (2) '運命觀을 통해서 본 和答의 意味' 분석을 통하여, 작가가 소설 속에서 형상화하고자 했던 운명관의 正體를 심도있게 해석해 내고자 한다.



20) 대비의 대상 A와 B가 있을 때, 대상 A의 속성 a, a', a".....를 다 열거하고 난 후, 대상 B의 속성 b, b', b".....를 열거하여 두 대상을 대비하는 방식을 '일괄 대비'라 하고, 대상 A의 속성과 대상 B의 속성을 a·b, a'·b', a"·b".....처럼 교대로 열거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요목 대비'라 한다(고려대학교 대학국어편찬실 위음, 「언어와 표현」,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p. 119.).

II. 「黃土記」와 「먼 그대」의 作品 分析

1. 「黃土記」의 運命 構造

1) 플롯 분석

「黃土記」의 플롯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텍스트를 의미단락으로 해체해 보고, 그 의미소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 의미망 기능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서 「黃土記」는 모두 56개의 단락소로 의미망을 분절할 수 있고, 전체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작품의 의미구조를 더욱 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망들을 기능별로 나누어 명명작업도 아울러 병행하였다.

黃 土 記²¹⁾

(도입부)

1. 두 산맥은 상룡(傷龍)과 쌍룡(雙龍)의 전설을 지닌 '황토골'에서 결구된다.
2. 傷龍說은 등천하려던 황룡 한 쌍이 바위에 허리를 상해 피를 쏟았다는 전설이다.
3. 雙龍說은 등천하려던 황룡 한 쌍이 잠자리를 삼가지 않아 꿈이 좌절되자 서로 물어뜯으며 피를 흘렸다는 전설이다.
4. 絶脈說은 당나라 장수가 이 고을의 장사 탄생을 꺼려 혈을 찌르니 피가 흘렀다는 전설이다.

(1장)

5. '황토골' 앞 들에는 두레논 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21) 金東里, “黃土記”, 「韓國文學全集9」(서울: 三星出版社, 1993), pp. 323-348.

6. 힘깨나 있어 보이는 역쇠는 따로 떨어져 일을 하고 있다.
7. 역쇠는 분이가 들고 온 술등을 낚아채듯이 뺏아들고는 이내 들이킨다.
8. 분이는 알 수 없는 분통을 터트리다, 벌렁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잔다.
9. 산에서 내려오는 득보도 범상치 않은 몸집을 지닌 사나이다.
10. 역쇠와 득보 사이에 심상치 않은 눈빛이 부딪힌다.

(2장)

11. 안넷별은 '황토골'에서 잔등하나 넘어 있는 아늑한 산골짜기이다.
12. 안넷별의 힘겨름 싸움은 일종의 향연과도 같다.
13. 득보는 먼저 분이나 설희를 핑계로 싸움을 건다.
14. 득보는 춤과 노래를 부르며 역쇠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훑친다.
15. 역쇠는 득보의 매서운 주먹질에도 꺾꺾대며 웃을 뿐이다.
16. 역쇠의 사타구니가 득보의 발길에 채인다.
17. 다음 순간 역쇠는 모진 주먹 한방을 득보의 갈비뼈에 갖다 붙인다.
18. 역쇠는 쓰러져 있는 득보의 어깨 살을 물어뜯는다.
19. 역쇠와 득보는 한참 동안 죽은 듯이 누워 있다.
20. 저녁때쯤 다시 일어나 그들은 다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을 계속한다.
21. 그들은 서로 늦게까지 피를 뿜으며 엇치락뒤치락 싸움을 한다.

(3장)

22. 역쇠와 득보는 지난해 봄에 처음으로 만났고, 그때부터 그들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23. 역쇠는 열세 살 때에 벌써 동네 '들돌'을 들었던 장사였다.
24. 역쇠의 어깨에 침을 놓으라는 선고가 내려졌으나, 부모들은 반대했다.
25. 그런 후 역쇠는 힘 겨루는 데는 나서지 않았다.
26. 역쇠는 스물 살 남짓했을 때는 힘을 쓰고 싶다는 욕망으로 밤낮 혼자 시달렸다.
27. 역쇠는 아버지의 유언인 '한번 크게 쓰일 날을 기다리라'는 것만 믿고 있다가 머리털이 하얗게 세었다.

28. 역쇠는 주막집에서 자기와 비견할 만한 낯선 사내를 만나게 되어 기뻐한다.

(4장)

29. 역쇠는 득보가 조카딸이라며 내어 준 분리와 혼인한다.

30. 득보는 분리 보고 딸, 조카딸, 강짜 심한 여자라는 등 여러 가지로 불렀다.

31. 분리도 득보를 부를 때 아저씨, 그이, 득보라고 하는 등 아릇한 구석이 많았다.

32. 어느 날 술취한 분리는 열 여섯에 아들을 낳은 적이 있다고 역쇠에게 말한다.

33. 득보는 처음 대장간 일을 하다가 이복형제와 말다툼 끝에 살인함으로써 떠돌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34. 득보는 고향 근처에서 대장간 일을 하다가 살인자였다는 소문 때문에 다시 나그네 길을 떠난다.

35. 그러나 분리는 득보가 두 번째 나그네길을 떠나게 된 것은 그녀 자신이 그의 옥동자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6. 분리는 역쇠와 부부 연을 맺었어도 득보에게 가는 일이 더 많았다.

37. 역쇠와 득보에게 분리의 이런 생활은 싸움 걸기에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다.

38. 분리는 득보가 데리고 오는 계집들에게 생트집을 걸어 내쫓기가 일쑤였다.

39. 분리가 역쇠에 대한 큰 불만은 잠자리에서 너무 심심하다는 점이었다.

(5장)

40. 역쇠는 분리를 단념하고, 정숙한 과부 설희를 손아귀에 넣게 된다.

41. 분리는 역쇠와 설희의 관계를 알고 배알이 뒤틀린다.

42. 득보도 설희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터라 역쇠에게 넘어가자, 그녀는 그들 사이에 종종 시비 거리로 등장하였다.

43. 한편, 분이는 득보마저 설희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 비수를 품는다.

(6장)

44. 억쇠와 득보가 설희에게 빠져 있을 무렵, 분이의 행동에 심상찮은 변화가 보인다.

45. 분이는 어느 날 밤 설희[임신한 상태]를 죽이고, 득보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7장)

46. 득보는 그런 일이 있을 후, 달포 동안에 완전히 늙은 사람이 되었다.

47. 득보는 분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그녀의 행방을 확실히 아는 이는 없었다.

48. 득보도 봄이 되자 표연히 어디론가 길을 떠나고 만다.

49. 억쇠는 억쇠대로 득보를 기다리게 된다.

50. 이른 여름 득보는 어린 계집애[분이의 딸] 하나를 데리고 황토골로 돌아온다.

51. 득보는 분이가 뒤졌다고 하나, 가끔 그녀를 찾아 나서곤 하였다.

52. 득보가 집에 있을 때는 데리고 온 계집애를 시켜 억쇠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다.

53. 어느 날 득보가 돌연히 퍼런 단도를 억쇠 앞에 내놓으며 결투를 신청한다.

54. 억쇠는 이 일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흔쾌히 받아들인다.

55. 득보가 먼저 안넷벌로 향하고, 뒤이어 억쇠가 술을 챙기고는 뒤따른다.

56. 억쇠는 득보의 단도가 자기의 저리고 근지러운 간과 허파를 송두리째 끊어 내어 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몸서리친다.

이 소설의 구조는 프롤로그 부분 — 세 전설 — 과 내부이야기 — 7개의 장 — 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즉, 프롤로그는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상성을

암시하고, 내부이야기는 프롤로그의 사상성을 소설적 이야기로 형상화한 부분이
다. 이 점에 관하여 다음은 장별로 그 의미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도입부>

이 부분은 이 소설의 주제 의식이나 사상성을 미리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²²⁾에 해당한다. 즉, ‘傷龍’, ‘雙龍’, ‘絶脈’의 세 전설은 모두 ‘황토골’의 절망적인 운명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세 전설은 다음의 내부이야기에 투사되어 한 편의 서사적 이야기로 형상화되어 전개된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구조적 특징은 ‘황토골’에 내려오는 전설을 前像으로 하고, 그것이 한 편의 내부이야기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²³⁾

따라서 도입부의 의미기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운명의 암시>로 명명할 수 있다.

<1장>

주인물 역쇠와 득보는 서로 유일한 힘대결의 상대자임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황토골’이라는 저주받은 땅(?)에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입부에서 제시된 두 산맥과 두 용에 얽힌 전설들은 하나 같이 부정적인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롤로그의 의미기능이 내부이야기를 이끄는 두 인물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은 주인공 역쇠와 득보의 비범성과, 서로 숙명적인 경쟁 상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기능을 <운명적인 맞수>로 명명할 수 있다.

<2장>

주인물 역쇠와 득보는 ‘안넷벌’에서 한 철 한두 번씩 자신들의 ‘초인적 힘’을 분출하기 위해 처절한 혈투극을 벌인다.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힘발산의 기회이며 통로였던 것이다.

이 혈투극에서 주인공 역쇠는 한참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득보의 어깨 살점을

22) 安成洙,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發展研究 試論”(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1989), p. 14.

23) 崔時漢, “現代小說의 構造詩學的 研究: 金東里 小說을 中心으로”(碩士學位論文, 西江大學校, 1980). p. 25.

몰어 뜯고는 절경절경 씹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비통한 운명을 몰어 뜯는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별이는 혈투극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주어진 운명에 대한 무목적적이고 허무한 싸움이라 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이 장은 운명적으로 만난 두 장사의 <운명적인 싸움>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3장>

역쇠는 아버지의 ‘힘을 쓸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유언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려 보지만, 그 기회란 좀체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적인 고독감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무렵, 득보라는 사나이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은 역쇠와 득보의 <운명적인 만남>을 암시하는 곳이다.

<4장>

득보와 분이 사이에는 매우 모호한 호칭들²⁵⁾이 서로 오고 간다. 또한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문장 표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어휘들²⁶⁾이 종종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작가의 이런 모호하고 불명확한 서술 태도에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작가가 「黃土記」의 창작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주제 의식이나 구성의 기교에만 치중한 나머지, 글의 정확한 서술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을 다른 각도에서 작가의 의도를 살펴 본다면, 이와 같은 불투명한 진술 태도에는 등장인물 역쇠와 득보의 만남이 매우 ‘운명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장도 주인공 역쇠와 득보, 주변인물 분이와 설희의 관계를 설정하는 곳이므로 3장과 마찬가지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24) 金東俊, “金東里 小說 研究: 샤머니즘 계열의 작품을 中心으로”(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1989), p. 26.

25) ① 득보가 분이에 대하여 부르는 호칭: 딸, 조카딸, 강짜 심한 여자 등

② 분이가 득보에 대하여 부르는 호칭: 아저씨, 그이, 득보 등

26) 예를 들어, 야릇한(4번), 대개(4번), 모르다(7번: 다른 활용 형태까지 포함), 모양이다(2번: ‘추측’의 의미로 처리한 것) 등.

<5장>

주인물 역쇠는 평소 눈독을 들여오던 청상과부인 설희를 손아귀에 넣게 된다. 그런데 득보 또한 그녀를 탐내고 있던 터라,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방에 들락거리게 된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분에게 무서운 질투심이 발동하게 되고, 심상찮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장은 <위기 조짐>로 그 의미를 명명할 수 있다.

<6장>

여기에서 결국 잠재되어 있던 분이의 살인 행각이 표면화되고, 프롤로그의 '상룡설'과 '쌍룡설'에서 보여준 '피'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의 의미망은 <비극적 죽음>의 시퀀스로 요약할 수 있다.

<7장>

역쇠는 떠나 버린 득보가 다시 오기만을 간절히 희망한다. 결국 이른 여름 득보는 분이의 딸 하나를 데리고 나타난다. 이것은 득보가 '황토골'에서 맺은 역쇠와의 숙명적 인연을 끊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최종 종착점은 '황토골'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득보는 결국 역쇠에게 최후의 싸움을 신청한다. 이 提議는 평생 비운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전설 속의 두 용처럼, 마지막 혈투로서 자신들의 운명에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즉, 주인공 역쇠와 득보가 이처럼 최후의 결투를 벌이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황토골의 인물—과 '자연'—황토골의 전설—의 합일이 이루어지면 서, 영원 회귀의 순환 구조를 가진 '자연'에 귀화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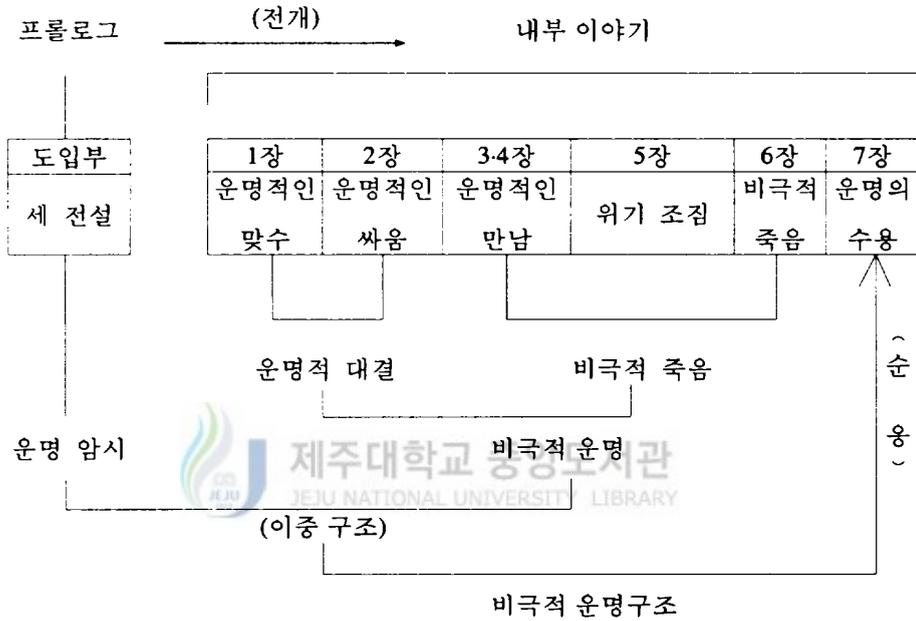
따라서 이 장은 도입부의 비극적 전설이 내부이야기에 가장 강렬하게 투영되고 있으므로 <운명의 수용>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상의 의미망 분절과 기능탐색 및 명명작업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이 소설은

27) 李惠子, “東里文學의 原型的 이미지 研究: 「巫女圖」, 「黃土記」, 「달」을 中心으로”(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1988), pp. 77-78.

프로로그와 내부이야기의 이중 구조로 짜여져 있고, 전자가 세 전설을 통하여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면, 후자는 등장인물들 간의 무모하고 소독 없는 싸움을 통하여 '비극적 운명'을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결국 등장인물들은 '죽음'이라는 극한적 행위로서 자신들의 운명에 순응하게 된다. 이 관계를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조도 1】 「黃土記」의 의미 생성 체계



따라서, 이 소설은 도입부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프로로그 부분과 주인공들의 좌절적 인생 역정이라는 내부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비극적 운명성'을 냉철하게 조명해 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물 역쇠는 '힘을 잘 아껴 두었다가 긴요할 때에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해보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기대를 걸고, 참고 기다렸으나, 머리가 반백이 되도록 그

런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설희로부터 자식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마저 분이의 살인 행각으로 무산되고 만다. 이와 같이 억쇠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득보도 억쇠와 마찬가지로 괴력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인물이다. 이처럼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주어진 운명의 힘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전형적인 비극의 주인공들'²⁸⁾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비극의 주인공은 신과 같은 존재와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 비극의 주인공은 우리와 비교하면 대단히 위대하다. 그러나 그의 배후에는 관객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으며, 이 존재와 비교하면, 그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어떤 존재는 신, 신들, 운명, 우연, 운수, 필연, 환경 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비극적인 주인공은 이 존재와 우리 사이의 중개자인 것이다.²⁹⁾...

이 소설의 주인공 억쇠와 득보는 괴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의 힘에 이끌리어,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 억쇠와 득보가 壯士라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었으나, 그 힘을 제대로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계속 곤두박질치는 파국적 하강의 플롯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N. 프라이의 플롯 유형³⁰⁾에 따르면 비극의 미토스³¹⁾에 해당한다.

28) N.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譯(서울: 한길사, 1982), p. 289.

29) *Ibid.*, p. 289.

30) *Ibid.*, pp. 228-337.

프라이는 문학적 이야기의 4가지 기본 범주를 제시하였는데, '로만스, 비극, 희극, 아이러니'가 그것이다.

31) *Ibid.*, p. 288-312.

비극은 대립적인 두 사태나 영역을 분별점으로 하여 바람직한 공간과 바람직하지 못한 공간 사이에서 첫 상황이 마지막 상황보다 나은 플롯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플롯은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타락의 플롯(파국적 하강 운동)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소설의 플롯은 ‘비극적 운명구조’로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극적 운명구조’의 실상은 다음 장인 작중인물의 욕망 분석을 통해 한층 명료하게 입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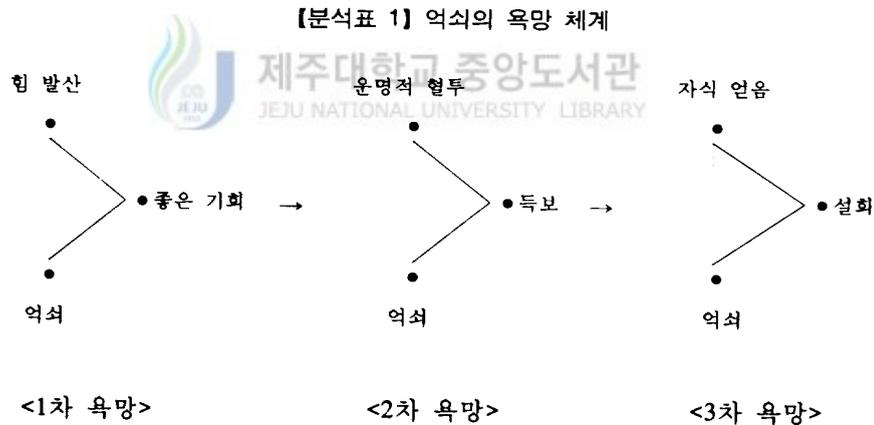
2) 인물의 욕망 분석

여기에서는 르네 지라르가 제시한 ‘욕망의 삼각형’을 형태론적인 차원에서만 원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³²⁾

우선 「黃土記」의 작중인물이 보여주는 욕망의 구조는 크게 (1) 억쇠의 욕망, (2) 득보의 욕망, (3) 분이의 욕망, 마지막으로 (4) 설희의 욕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1)과 (2)의 욕망은 서로 많은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억쇠의 욕망

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먼저, 억쇠의 욕망 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32) 여기서 ‘욕망의 삼각형’을 형태적 차원에서만 원용한다는 것은 작중인물의 욕망 체계를 이등변 삼각형의 논리로 이해하면서 주체, 중개자, 욕망 목표 등의 개념만을 빌려 옴을 뜻한다.

앞 욕망 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역쇠의 1차 욕망은 '좋은 기회를 만나 자신의 힘을 마음껏 써 보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욕망으로, 노경에 이르기까지 그 기회만을 꿈꾸며 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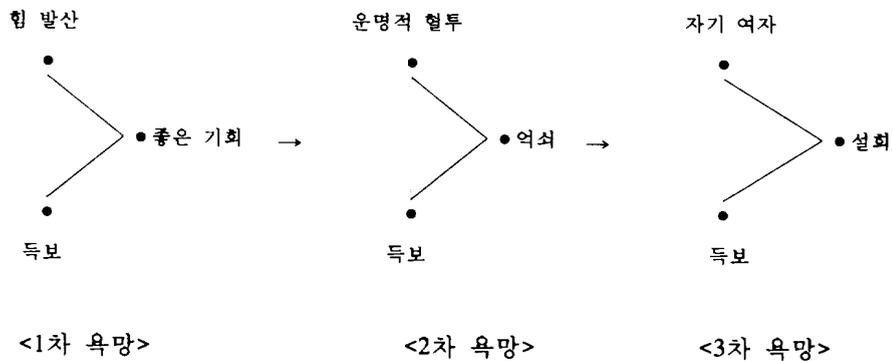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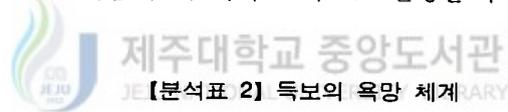
그러나 그는 이 1차 욕망 달성이 차츰 좌절되어 가자, 경쟁 상대인 득보와 안넷벌에서 '운명적 혈투'를 가져 보는 2차 욕망에 매달리게 된다. 이 욕망은 잠재된 힘을 일부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 싸움 자체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욕망 분출의 기회는 되지 못한다.

결국 주인공 역쇠는 나이가 들고 힘쓸 기회가 요원해지자, 설회를 통하여 자신을 얻고자 하는 3차 욕망을 갖지만, 분이의 살인 행각으로 그것마저 무산되고 만다.

이와 같이 주인공 역쇠의 욕망 체계는 좌절된 형태를 보여주면서, 욕망 목표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하향적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득보의 욕망

득보의 욕망도 역시 다음의 세 개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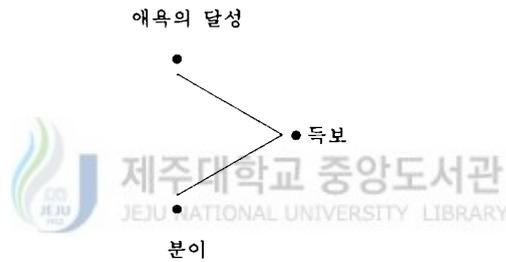
득보의 1차 욕망 역시 ‘좋은 기회를 만나 자신의 힘을 마음껏 써 보는 것’이고, 2차 욕망도 경쟁 상대인 억쇠와 ‘운명적 혈투’의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다. 그리고 3차 욕망은 설희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욕망들도 주인공 억쇠의 욕망 세계와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억쇠와 득보의 궁극적 욕망은 ‘힘을 마음껏 써 보고 싶어하는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서로 동일한 대상을 경쟁적으로 욕망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³⁾

(3) 분이의 욕망

주변인물 분이는 남편 억쇠로부터 얻지 못한 인간적 애욕을, 득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욕망 형태를 보인다.

【분석표 3】 분이의 욕망 체계



이 분이의 욕망은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주인공 억쇠의 처지와 관련시켜 해석해 본다면, 자신의 힘을 단 한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그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증폭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분이 또한 득보로부터 인간적 애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녀는 득보가 가끔씩 데려오는 여자들에게 강짜를 부려 내쫓아 버리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다. 그러던 차에 득보가 설희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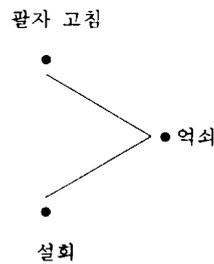
33) 趙春鎬, “金東里 「黃土記」論: 르네 지라르의 ‘欲望의 삼각형’ 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논문집』, 제5집(대구한의과대학, 1987), p. 245.

국 그녀는 설회를 죽이고, 득보에게마저 깊은 상처를 주면서 황토골을 떠나게 된다. 따라서 그녀의 인간적 애육도 달성되지 못하고 좌절된 형태를 보여준다.

(4) 설회의 욕망

주변인물 설회는 역쇠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박복한 자신의 팔자를 고쳐 보려는 소박한 욕망의 소유자이다.

【분석표 4】 설회의 욕망 체계



설회의 욕망은 주인공 역쇠와 득보의 3차 욕망과 맞물려 있으면서, 또한 분이의 욕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네 인물의 욕망은 분이의 질투심과 살인 행각으로 순식간에 좌절로 치닫고 만다.

이와 같이, 주인공 역쇠와 득보, 그리고 주변인물 분이와 설회는 자신들의 욕망들을 나름대로 성취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욕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작중인물들의 욕망이 모두 좌절되거나 실패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전부 ‘비극적 운명의 소유자’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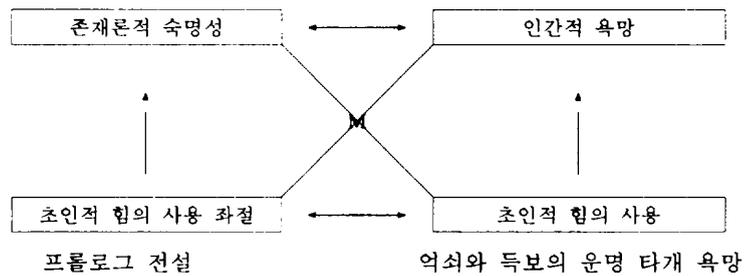
이러한 ‘비극적 운명 구조’는 다음의 주제 분석을 통하여 한층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주제 분석

「黃土記」의 주제의 해명과 수렴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분석의 논리로 하여 중재자, 혹은 최종 의미수렴자의 기능을 적절히 적용해 보는 것은 효과적이다.³⁴⁾

이 소설의 의미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이항대립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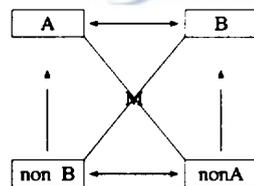
【구조도 2】 「黃土記」의 주제 수렴 체계



위 그림에서 보듯이, 「黃土記」는 인간의 ‘존재론적 숙명성’과 주인공의 ‘인간적

34) 하윤금, “그레마스의 기호학”, 「구조주의」(서울: 고려원, 1992), p. 92.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의 기호학적 사각형의 형태를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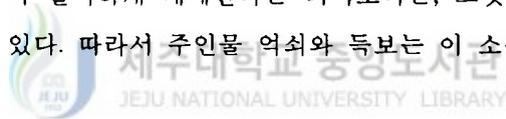
- 대립 관계(A와 B, nonA와 nonB가 대립)
- 모순 관계(A와 nonA, B와 nonB가 모순)
- 내포 관계(A에 nonB, B에 nonA가 내포)
- 의미 작용: 반드시 대립되는 관계에 의해서만 그 형태를 포착하는 것으로 A 대 B의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 대립 관계는 동질성을 부정하는 모순관계를 거쳐서 다른 편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이것은 $A \rightarrow nonA \rightarrow B$, $B \rightarrow nonB \rightarrow A$ 로 나타낼 수 있다.
- M: 중재자 혹은 의미수렴자

욕망'이 서로 대립된 관계를 통해 그 의미가 생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는 프롤로그에서 보여준 '비극적 운명 세계'와 주인공들의 배경에 위치하는 '절대적인 힘'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내부이야기에서 보여준 주인공의 '운명 타개 욕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자는 주인공의 '초인적 힘의 사용 좌절'을, 후자는 '초인적 힘의 사용'을 의미론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구조는 '존재론적 숙명성'과 '초인적인 힘의 사용'은 모순 관계에 놓이면서, 이 두 관계는 보이지 않는 '운명적인 힘(M)'에 이끌리어, 결국 주인공의 '인간적 욕망'은 좌절되거나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黃土記」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힘'의 존재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비극적 운명관'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주인공 역쇠가 주어진 운명을 타개하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실패하고 결국, 유일한 경쟁 상대인 득보와의 소모적인 혈투만을 하게 되는 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숙명적으로 비극적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 역쇠와 득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죽음의 결투는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에 대하여 철저하게 패배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과의 화해요, 합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 역쇠와 득보는 이 소설의 최종 의미수렴자가 되고 있다.



2. 「먼 그대」의 運命 構造

1) 플롯 분석

「먼 그대」는 작품구조의 측면이나 주제의 측면에서 작가의 운명관을 잘 형상화하여 보여준 단편이다. 즉, 이 소설은 구조적 측면에서 주인공 문자의 '현실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서로 대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내적 자아'가 바람직한 '이상적 자아'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고, 주제의 측면에서도 주인공 자신의 자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낙관적 운명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 그대」의 플롯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작업으로 먼저, 그 의미망들을 요약해 보면 47개로 분절할 수 있고, 아울러 그 의미망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탐색하여 명명작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그대³⁵⁾

1. 문자의 옷차림은 한참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다.
2. 문자는 10년간 H출판사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3. 문자를 무시하는 동료들도 그녀의 등뒤에서 쌀쌀한 냉기를 종종 느끼곤 하였다.
4. 문자는 주위의 어떤 일에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5. 문자는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뒤로한 채 먼저 퇴근한다.
6. 문자가 세상일에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의 힘찬 내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7. 문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우에도 모두 좋은 일로만 여겨졌다.
8. 문자의 역센 정신은 언제나 가혹한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35) 서영은, “먼 그대”, 『韓國文學』, 제11권, 통권 115호(서울: 韓國文學社, 1983), pp. 96-112.

9. 문자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 나갈 수 있는 힘은 '절대 긍정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0. 그러나 문자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
11. 문자는 이모에게 전화를 한다.
12. 문자는 한수가 이따금 적지 않은 목돈을 요구해 와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13. 문자에게 한수는 상처만 주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불사의 정신[낙타]을 이끌어 냈다.
14. 한수는 아내를 시켜 문자로부터 핏덩이 옥조[딸]를 데려오으로써 그녀를 소유하고자 했다.
15. 한수의 아내는 문자가 항상 마음에 걸렸다.
16. 한수는 아내로부터 옥조를 순수히 내주더라는 말을 듣고는 문자에 대하여 왠지 모를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다.
17. 십년 전 겨울, 한수는 문자의 자취방에 들락거렸다.
18. 문자는 어려운 자취 생활에도 행복하였다.
19. 문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며 생활했기 때문이었다.
20. 문자는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21. 그러나 한수는 곁에서 문자가 만들어 내는 황금빛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22. 한수는 문자를 늘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23. 한수가 돈줄을 잡았을 때도, 문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24. 어느 날 문자는 자기를 두고 가는 한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25. 그런 후 문자는 한동안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26. 그 때, 문자 속 '낙타'는 가혹한 고통을 주는 그를 사랑으로 복수하라고 외쳤다.
27. 그런 후, 문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다.
28. 어느 날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그는 폭삭 망했다.

29. 문자는 이모의 집을 둘러보며 물질적 만족보다, 정신적 불만족의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30. 문자는 먼지가 낀 옥조의 사진을 닦고 또 닦는다.
31. 문자는 밤마다 아기를 빼앗기는 악몽을 꾸 적이 있었다.
32. 그때 문자는 누군가를 향해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었다.
33. 그러자 '낙타'가 또 몸을 일으키며 그 고통을 잘 견디라고 타일렀다.
34. 이제 문자는 옥조의 사진을 보고도 담담하게 미소지을 수 있다.
35. 이모는 옥조를 한수에게서 데려오라고 말한다.
36. 그러나 문자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며, 갑자기 혈육도 초극했던 징기스칸의 영웅 이야기를 이모에게 들려준다.
37. 이모는 불현듯 문자에게 돈 많은 사람이 있으니 결혼하라고 권유한다.
38. 문자는 이모 말에 무관심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초조해 한다.
39. 이모는 계속 말을 하지만, 문자는 문자대로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
40. 문자는 리비아의 유목민들은 안락한 도시를 버리고, 사막의 신(神)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어느 기사 내용을 떠올린다.
41. 문자는 옥조도 스스로 자신의 '낙타'를 이끌어 내기를 기원한다.
42. 불구의 몸에도 당당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고목 나무를 보며, 문자는 언제나 삶의 위안을 얻었다.
43. 문자는 한수가 갈긴 오줌 묻은 담벼락을 씻는다.
44. 그러다가 문자는 정말 자신이 갈구하는 고통의 끝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본다.
45. 문자는 구부리고 자는 한수를 보고,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46. 돈을 받자 한수는 일어섰고, 그럴 때마다 문자는 맘속으로 울고 입술로는 웃었다.
47. 그는 계속 신처럼 멀어져만 갔고, 그녀는 그것에 다다르려는 갈망으로 다시 온몸이 갈기처럼 떨려인다.

<단락 1—6>

문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녀는 직장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힘차고, 내밀한 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단락의 의미망은 <동료들이 문자를 무시함 → 문자 상관 안함 → 힘찬 내적 자아 의식 소유>로 요약할 수 있다.

<단락 7—9>

문자는 타인들의 시선에 대하여 별로 의식하지 않는 편이며, 또 자신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가져가도 좋다는 듯 자신 만만한 내면 상태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녀가 어떠한 무거운 짐도 얼마든지 짊어질 수 있다는 강한 '내적 자아'가 항시 그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 → 모두 좋은 일로만 여겨짐 → 절대 긍정적 자신감>의 형태로 그 의미망이 요약된다.

<단락 10—13>

여기에서의 '낙타'는 평소에 주인공 문자의 내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그녀가 현실적 고통에 몹시 시달릴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녀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낙타'는 문자의 또 다른 내면적 실체이면서, 그녀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락은 <돈을 요구함[한수] → 이모에게 돈을 빌리려 함 → 불사의 정신[낙타]을 이끌어 냄>으로 시퀀스가 요약된다.

<단락 14—16>

문자는 자신의 딸을 한수의 아내에게 순순히 내어주는데, 그것은 그녀의 '내적 자아'가 상상을 초월한 단계에 있으며, 또한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 단락은 <딸을 빼앗아 감[한수의 아내] → 순순히 내줌 → 무서운 느낌 받음 [한수]>의 형태로 요약이 가능하다.

<단락 17—23>

문자가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 있었다. 즉, 문자는 많은 고통을 안겨 준 한수에게 항상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했던 것이다.

이 단락의 의미망은 ①<어려운 자취 생활 →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 → 행복한 나날>, ②<이기적인 사람[한수] → 그에게 정성을 다함 → 황금빛이 나는 사랑>, ③<경계의 눈초리[한수] → 황금빛 온기 발산 →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락 24—28>

문자의 의식은 '현실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서로 갈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이상적 자아'로 발전해 나간다는 '변증법적 자아 형성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단락의 의미망을 정리하면 <한수를 뒤에서 붙잡음 → 괴로운 나날 보냄 → 지독한 사랑으로 복수 결심>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단락 29—34>

여기에서 또 문자는 '낙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해내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낙타'의 의미기능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라이트 모티프'³⁶⁾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자에게 '낙타'라는 것은 그녀가 추구하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상적 자아'의 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락의 의미망은 ①<물질적 풍요를 누림[이모] → 이모집 둘러봄 → 정신적 갈증의 삶을 선택함>, ②<딸 사진을 보게 됨[옥조] → 사진을 여러 번 닦음 → 담담한 마음이 생김>, ③<악몽에 시달림 → '낙타'에게 고통을 호소함 → 고통을 극

36) 볼프강 카이저, 「言語藝術作品論」, 金潤涉 譯(서울: 大邦出版社, 1982), p. 107.
'라이트 모티프(Leitmotif)'는 흔히, 引導 모티프, 혹은 主導 모티프라고 불리기도 한다.

복하라고 외침[낙타]>으로 요약된다.

<단락 35—41>

영웅 징기스칸과 리비아 유목민의 이야기는 문자의 의식 세계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전자는 그녀가 혈육의 정을 초극하겠다는 의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후자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괴로운 고통의 삶을 더 갈망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기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의미망은 ①<옥조를 데려 오라고 함[이모] → 징기스칸 영웅이야기만 함 → 혈육마저 초극함>, ②<결혼 권유[이모] → 화가 남 → 무관심해짐>, ③<계속 결혼 권유[이모] → 딴 생각함 → 리비아인의 사막 생활 떠올림 → 스스로 '낙타'를 이끌어 내기를 바람[옥조에게]>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단락 42—47>

문자는 생명수를 찾아 부단히 차고 견고한 흙속으로 하얀 의지를 뻗었을 불구의 고목나무를 보며, 그녀는 인간의 근원적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自問해 본다. 즉, 그녀는 고통의 끝에 정말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의 경지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생각'과 함께, 그러나 그 끝 역시 고통의 연속일 뿐이라고 하는 '절망적 생각'이 겹쳐지면서 자신의 삶을 회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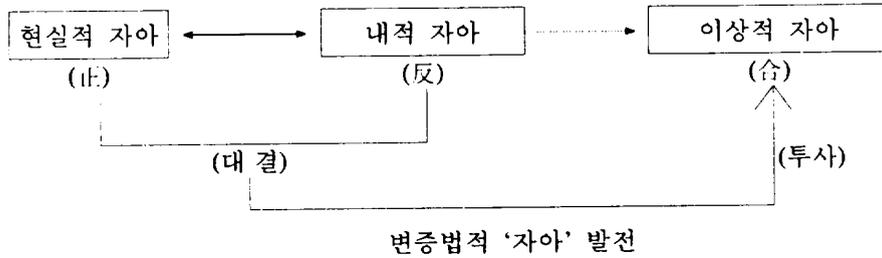
그리고 그녀는 한수를 보며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되새겨 본다. 그녀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한수와 진정한 사랑을 통해 '완전한 인간'³⁷⁾이 되고자 꿈꾸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의 의미망들을 떠올려 보면, ①<불구의 고목나무 → 곁에서 한차례 씹 → 삶의 위안을 얻음>, ②<오줌 쓴 벽을 씻어 냄 → 고통의 생활을 강하게 의심해 봄 → 한수를 보고 진정한 사랑을 생각함>, ③<돈을 챙기자 일어섬[한수] → 울고 웃음[속과 겉] → 더 높은 곳에 도달하고자 갈망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37) Duane Schultz 著, 「人間性格의 理解: 健康한 性格에 관한 諸接近」, 李祥雨·丁鍾鎭 共譯(서울: 中央適性出版社, 1988), p. 200.

지금까지의 요약한 의미망들을 총망라하여, 이 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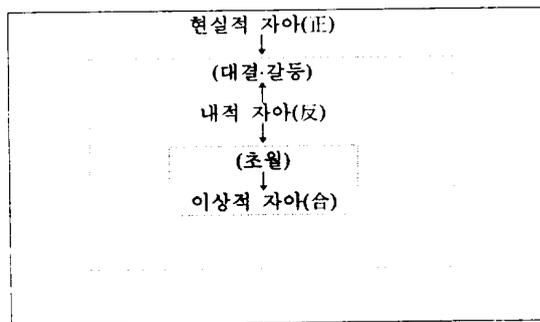
【분석표 5】 문자의 '자아' 발전 양상



위 도식은 주인공이 '현실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상호 끊임없는 대결이라는 '변증법적 발전구조'를 통하여, '이상적 자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염원을 구조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심층적 의미구조는 주인공 문자가 자신의 자아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주인공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내적 자아'와의 대결과 갈등을 통하여, 그 고통을 초월한 '이상적 자아'의 세계로 끊임없이 성숙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 준다. 이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표 6】 문자의 '자아' 변모 과정



앞에서 보았듯이, 이 소설은 '변증법적 자아 발전구조'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인공 문자와 한수의 관계는 프라이가 말하는 "로만스의 중심을 이루는 형식은 변증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주인공과 적 사이의 갈등에 집중되어지고 있으며, 독자의 모든 가치관은 주인공과 꿈틀해야 꿈틀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³⁸⁾고 하는 주장에 잘 부합되고 있다. 즉, 주인공 문자에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은 한수인데, 그는 그녀와 윤리적으로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³⁹⁾ 문자가 이상을 추구하고 利他的인 성격의 인물이라면, 한수는 현실적 욕망에 집착하고 利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문자는 '절대 긍정적 자신감'을 감추고 있는 존재이므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담담하게 바라다볼 뿐이다. 회사 동료들의 따돌림, 자취집 아줌마의 푸대접, 딸을 빼앗아 가는 한수 아내의 행동, 이모의 시큰둥한 태도 등 어떤 것도 그녀의 강한 정신을 무릎꿇게 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한수까지도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가 버린 그 무엇에 불과하며, 그녀의 '내적 자아'를 동요시킬 만한 인물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단지, 이들은 문자의 삶을 방해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어떤 존재'와 끊임없이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助長하는 구실만 할 뿐이다. 따라서 현실이라는 한계적 조건을 가지고서도 결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문자의 도전적 태도야말로 '적극적 인간관'의 한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은 주인공 문자의 의식 상태가 지속적인 이상 추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N. 프라이의 플롯 유형에 따른다면 로만스 미토스⁴⁰⁾에 해당한다.

38) N. 프라이, 「비평의 해부」, *op. cit.*, p. 262.

39) *Ibid.*, p. 273.

40) *Ibid.*, pp. 260-287.

로만스는 대립적인 두 사태나 영역을 분별점으로 하여 바람직한 공간과 바람직하지 못한 공간 사이에서 첫 상황과 마지막 상황이 둘 다 이상화되었거나 매우 좋은 플롯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플롯은 사태가 계속 좋아지는 것으로, 낭만적 플롯(낭만적 지향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만스에 있어서 플롯의 본질적 요소는 모험이다. 모험이므로 로만스는 자연히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형식을 취한다.”⁴¹⁾는 논리에, 「먼 그대」의 플롯은 그것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문자가 겨루고 있는 ‘어떤 존재’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힘의 상징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존재’로, 문자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을 완전히 초월했을 때에만 체험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처럼 문자가 택한 ‘모험’은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의 끊임없는 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문자가 그 절대적 대상과 상대하여 승패를 가림으로써 그 모험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녀가 계속해서 찾아 나서겠다는 ‘과정적인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끊임없이 무언가 갈망하며 찾아 나서는 주인공 문자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이란 주어진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바라던 ‘바람직한 자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적 인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 소설의 플롯은 주인공의 자아 변화 과정을 통해 ‘낙관적 운명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관적 운명구조’는 작중인물의 욕망 분석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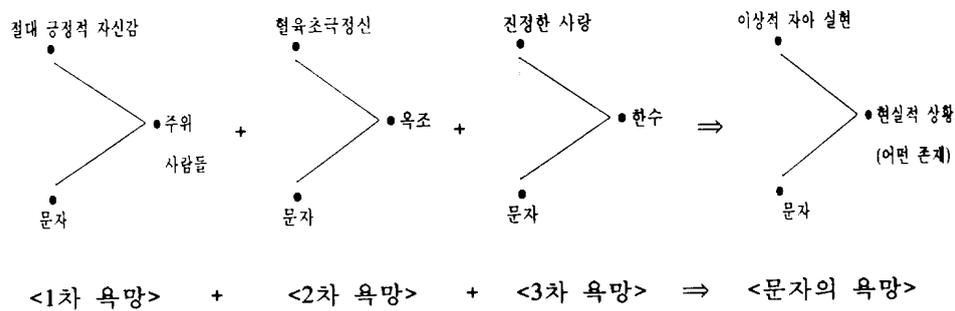
2) 인물의 욕망 분석

「먼 그대」의 대표적인 욕망 주체는 주인공 문자이다. 주인공의 욕망 체계를 소설의 진행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의 3개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주인공 문자의 1차 욕망은 ‘주위 사람들이 주는 고통을 통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절대 긍정적 자신감’을 갖는 것이고, 2차 욕망은 ‘딸 옥조를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냄으로써, 혈육의 정을 초극하려는 정신’이고, 3차 욕망은 ‘고통만 주는 한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41) *Ibid.*, p. 261.

이와 같이 주인공의 욕망 특징은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의 한계상황'[중개자]을 뛰어 넘어,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의 '정신적 구경'[대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궁극적인 욕망은 현실적 고통을 제공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의 대결을 통하여,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의 욕망 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표 7】 문자의 욕망 체계



이 소설에서 주인공 문자와 대결하고 있는 '어떤 존재'의 의미는 '이상적 자아'를 추구하도록 '내적 자아'를 충동질하는 일체의 '현실적 상황'으로, '운명'을 포함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상징적 실체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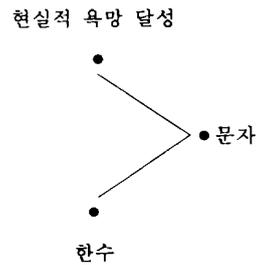
그런데 이런 존재와 맞서는 인간은 전형적인 비극의 주인공⁴²⁾이 되어야 하지만, 주인공 문자는 그 상황이 사뭇 다른 것이 특징이다. 그녀는 극복하기 힘든 '어떤 존재'와 정면 승부하여, 반드시 자신의 궁극적 자아를 실현시키겠다는 절대 긍정적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黃土記」의 인물들이 보여준, 운명에 대한 수동적 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는 주어진 현실 상황에 만족

42) 앞에서 살펴본 「黃土記」의 역사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그 운명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비극적 주인공이 되고 있다.

하지 않고 끝없는 자기 초극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욕망을 보여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낙관적 운명관'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부수적으로 한수의 욕망이 나타나 있는데, 그는 문자를 매개로 하여 현실적인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분석표 8】 한수의 욕망 체계



한수의 욕망 특징은 문자의 '이상적 자아' 추구의 욕망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현실적 욕망' 추구의 성격이 강하다. 그의 욕망 추구 형태는 '물질적 충족'을 위해 몸부림 치는 모습과 '이기적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전자는 그가 사업을 확장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 속에 잘 나타나 있다면, 후자는 문자에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군다든가, 딸 옥조를 그녀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 등,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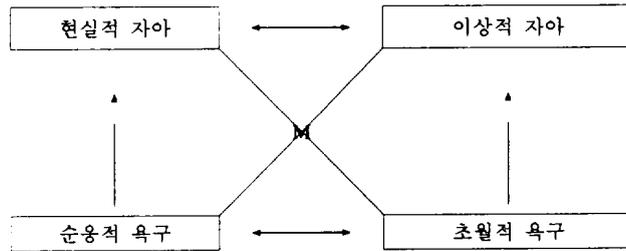
그러나 한수의 욕망은 문자의 욕망에 비하여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표면적으로는 한수가 문자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녀는 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한수의 욕망은 문자에게 현실적 고통을 주는 방법을 통하여, 그녀로 하여금 '내적 자아'의 고난 극복 의지를 촉발시켜 주는 동기로 작용할 뿐이다.

이제 주인공 문자가 보여주고 있는 '낙관적 운명관'의 사상은 다음의 주제 분석을 통해서 한층 명료하게 입증될 수 있다.

3) 주제 분석

「먼 그대」의 주제 수렴 체계를 그레마스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에 맞춰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도 3】 「먼 그대」의 주제 수렴 체계



- 대립 관계: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순용적 욕구와 초월적 욕구
- 모순 관계: 현실적 자아와 초월적 욕구, 이상적 자아와 순용적 욕구
- 내포의 관계: 현실적 자아와 순용적 욕구, 이상적 자아와 초월적 욕구
- M: 중재자 혹은 의미수렴자

도표에서 보듯이, 「먼 그대」는 기본적으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서로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전자는 주인공의 ‘순용적 욕구’를, 후자는 ‘초월적 욕구’를 각각 의미론적으로 내포한다. 이 ‘이상적 자아[초월적 자아]’는 ‘현실적 자아’를 초극하려는 ‘내적 자아’⁴³⁾의 추구의 대상이라면, ‘현실적 자아’는 ‘내적 자아’가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 문자의 자아 변모 과정을 통하여, 현실에 순용하고자 하는 ‘현실적 자아’와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를 대립시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내적 자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

43) ‘현실적 자아’와 대결하여 문자를 ‘이상적 자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간적 자아’이다.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낙타'의 이미지는 주인공이 어려운 현실과의 싸움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역동적 힘의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앞에서도 주인공 문자가 더 높은 '이상적 자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낙타'는 이 소설의 '라이트 모티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중재자(M)의 역할과 그 기능이 주목된다. 중재자란 일반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화해와 해결의 상황으로 이끄는 중간 조정자⁴⁴⁾를 말하지만, 라이트 모티프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낙타'는 문자의 '내적 자아'를 표상하면서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소설의 중재자의 역할도 아울러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최종 의미수렴자는 작품 속의 주인공 문자가 된다. 이 소설의 종결부에서 주인공은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자아를 더 높이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또 다른 시련에 대한 새로운 대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는 인간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숙명적 한계상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한계성에 적극적으로 맞서 극복하고자 하는 '낙관적 인간관'과 '초월적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자는 이 소설의 최종 의미수렴자가 되고 있다.

44) 안성수(1989), 전제서, p. 29.

III. 小說에 나타난 運命觀 對比

1. 受容的 運命觀과 對決的 運命觀

지금까지는 「黃土記」와 「먼 그대」를 개별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플롯의 층위와 인물의 욕망 층위 및 주제의 층위로 나누어 두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운명관'을 통합적 차원에서 대비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플롯의 층위에서 두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黃土記」는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세 전설의 프롤로그와 주인공 역쇠와 득보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내부이야기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면, 「먼 그대」는 주인공 문자가 주위에서 주어지는 고통 — 특히 한수로부터 받는 시련 — 을 철저히 딛고 일어나, 보다 높은 이상적 자아의 세계로,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黃土記」의 주인공 역쇠와 득보는 타고난 힘을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발산해 보고 싶은 존재들이지만, 좀처럼 그 절호의 기회란 찾아오지 않는다. 그 기회를 만나 자신들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만다. 따라서 이 소설은 프롤로그에서 암시된 '비극적 운명성'과 내부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좌절된 인생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구조는 '비극적 운명구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먼 그대」의 주인공 문자는 주변의 현실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평범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순순히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것과 철저히 겨루면서 이상적 세계의 공간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의 변증법적 의식 진행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구조는 '낙관적 운명구

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인물의 욕망 층위에서 두 소설을 살펴보면, 「黃土記」의 등장인물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의 타고난 운명에 대하여 순응하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비극적 욕망의 소유자'라 할 수 있고, 「먼 그대」의 주인공은 현실적 고통을 제공하는 '어떤 존재'와의 정면 대결을 통하여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욕망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의 역쇠와 득보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하여 극복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이기보다는, 무한정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좌절되어 버리는 욕망의 형태를 보여준다면, 후자의 문자는 극복하기 힘든 현실을 자신의 '내적 자아'의 힘을 통하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를 끊임없이 탐색해 나가는 욕망의 형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주제의 층위에서 두 소설을 대비하여 보면, 「黃土記」는 주인공의 불가능한 운명 극복 욕망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비극적 운명성'을 그 중심 의미로 하고 있다면, 「먼 그대」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내적 자아'를 계속 단련시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상적 자아 세계' — 至高至順의 초인 세계 — 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운명관'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黃土記」의 '비극적 운명관'은 '봉조새'를 노래하는 부분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

새야 새야 봉조새야

북명바다 봉조새야

치징 치징 저절씨구

지화자자 저절씨구

간다 훨훨 나아간다.

수격 삼천리.....

내 한 주먹 번득하면 네놈 대가리가 박살이라,

치징 치징 치징

지화자자 저절씨구.⁴⁵⁾

...

이 '붕새'는 주인공 억쇠와 득보가 결투를 하면서 부르는 단순한 노래 속의 새가 아니라, 그 뒤편에는 암담한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주인공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비극적 죽음에 이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용과 같은 그들은 '붕새'⁴⁶⁾가 날개짓을 하여 수천 수만 리 창공을 날아가듯이, 잠재된 자신들의 초인적인 힘을 마음껏 발산하고 싶은 원대한 욕망을 지닌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끝내 힘발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운명에 순응하는 형태로 끝을 맺고 만다. 곧, 이들의 죽음은 자신들의 운명 속에 굴복하거나 수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그들의 삶이 비극적 운명으로 이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5) 김동리(1993), 전개서, p. 330.

46) 朴鍾浩, 「莊子 哲學」(서울: 一志社, 1985), p. 10-11.

(原文) 北溟에 有魚하니 其名이 爲鯢이라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니 化而爲鳥에 其名이 爲鵬이라 鵬之背는 不知其幾千里也니 怒而飛에 其翼이 若垂天之雲이라.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溟하니 南溟者는 天池也라 齊諧者는 志怪者也니 諧之言에 曰 鵬之徙於南溟也에 水擊 三千里하고 搏扶搖而上者九萬里니 去以六月息者也라. (밑줄은 필자가 표시)

(國譯) 북명에 고기가 있어 그 이름이 곤이라 하는데 그 곤어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변화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이 붕이라 한다. 그 붕조의 등(배)은 몇 천리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놈이 한번 기운을 떨쳐 날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한번 크게 움직일 때에 따라서 남해로 옮겨가니, 남해는 곧 천지다. 제해라는 것은 괴이한 일을 기재한 책인데, 이 제해란 책에 “붕조가 남해로 옮기려 할 때에는 삼천 리나 되는 물결을 치면서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타고 구만리를 날아올라, 가서 여섯 달만에 쓴다.”고 하였다.

반면, 「먼 그대」의 ‘낙관적 운명관’은 현실적 갈등에 대하여 주인공 문자가 보이는 반응 양상을 추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주인공 문자가 현실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다른 하나는 자식에 대한 ‘혈육의 정’에서 오는 갈등이다. 전자의 갈등은 그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경우이거나 타인으로부터 원인이 되어 그녀를 괴롭히는 형태를 보여준다면, 후자의 갈등은 인간의 원초적인 갈등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녀는 그런 갈등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좀더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갈망한다.

문자에게 ‘소유욕’에 대한 갈등을 절대적으로 유발시키는 인물은 물론 한수이다. 그는 문자에게 정신적 상처도 많이 주었지만, 돈을 요구한다던가, 심지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져도 결코 그녀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인공 문자는 때로는 깊은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물질적 소유 욕구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내적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주인공의 내면적 상태를 극단적으로 표출해 놓은 곳은 다음의 대목이다.

...「고통이여, 어서 나를 찢러라. 너의 무자비한 칼날이 나를 갈가리 찢어도 나는 산다. 다리로 설 수 없으면 몸통으로라도, 몸통이 없으면 모가지만으로라도. 지금보다 더한 고통 속에 나를 세워 놓더라도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꺼야.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나는 철저히 그를 사랑함으로써 복수할 테다. 나는 어디도 가지 않고 이 한자리에서 주어진 그대로를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야. 그래,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 이런 운명을 마련해 놓고 내가 못 견디어 신음하면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는 신(神)에게도 나는 멋지게 복수할 거야!」⁴⁷⁾...

그리고 문자의 혈육에 대한 인간적 갈등은 딸 옥조에 대한 것으로, 보통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모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며,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인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47) 서영은(1983), 전계서, p. 106.

문자는 이모가 옥조를 데려오고 난 후 한수와 인연을 끊어 버리라고 충고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징기스칸의 영웅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 이야기 속에 그녀의 초월된 정신의 한 구경을 역력히 찾아볼 수가 있다.

...얼마전 징기스칸에 관한 전기를 보았어요. 그는 금나라를 치고 나서, 그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버리고 떠나더군요. 징기스칸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웅이 되게 한 것은 아들을 버림으로써 사랑까지도 밟고 지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한 집념과 마찬가지로 혈육 역시도 초극(超克)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 여겨져요. 나는 꼭 누구랑 끊임없이 대결하는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⁴⁸⁾...

문자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딸을 안락한 삶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늑가로 내던져 놓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남다른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더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그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극함으로써, 인간은 최고의 이상적 정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긍정적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는 인물이다.

이상을 통해서, 「黃土記」와 「먼 그대」가 갖고 있는 운명관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면, 전자가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수용적 자세를 보여준다면, 후자는 대결적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黃土記」는 주인공 역쇠와 득보가 프롤로그에서 암시된 '비극적 운명'에 대하여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극적 운명관'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고, 「먼 그대」는 주인공 문자가 '현실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대결을 통하여 차원 높은 '이상적 자아'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투쟁적, 초월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낙관적 운명관'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상계서, p. 108.

【분석표 9】 「黃土記」와 「먼 그대」의 운명관 대비

작 품 구 분	「黃土記」	「먼 그대」
플롯의 유형	비극의 미토스	로만스 미토스
욕 망 형 태	운명적 욕망 추구의 비극적 좌절 (역쇠 · 득보)	낙관적 욕망 추구의 진행 (문자)
주 제	비극적 운명론	낙관적 운명론
작 품 구 조	수용적 운명구조	대결적 운명구조
운 명 관	비극적 운명관 (소극적, 순응적, 수용적)	낙관적 운명관 (적극적, 대결적, 초월적)

2. 運命觀을 통해서 본 和答의 意味

소설 속에 형상화된 인간의 운명관은 본질적으로 작가의 인간관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동리가 「黃土記」를 통해서 보여주는 운명관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비극적인 운명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영은이 「먼 그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운명관은 인간이란 얼마든지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상은 「黃土記」 운명관과 「먼 그대」의 운명관은 상호 대립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아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운명관의 양극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쪽 극단에는 비극적 운명관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낙관적 운명관이 자리잡고 있다. 그 사이에 모든 인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두 운명관은 모든 운명관을 상징하는 양 극단의 축으로서의 전형

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37년에 발표된 김동리의 「黃土記」의 비극적 운명관과 1983년에 발표된 서영은의 「먼 그대」의 낙관적 운명관은 시대를 뛰어넘어 짝을 이루는 동시에 인간의 총체적 운명관의 양극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운명관에 대하여 서영은이 언급한 소설적 화답의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黃土記」가 보여주는 비극적 운명관과 「먼 그대」의 낙관적 운명관은 작가와 독자, 독자와 작가, 또는 작가와 작가의 관계 속에서 소설을 통해 주고받는 문학적 화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⁴⁹⁾ 이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표 10】 소설적 화답의 구조⁵⁰⁾

작 품(작가)	「黃土記」(김동리)	「먼 그대」(서영은)
구 분		
운명관의 화답	① 작가 → (비극적 운명관의 제시) ↑ 독자 ←	→ 독자 ↓ (낙관적 운명관 제시) ← ② 작가
소설적 화답	① 작가 ⇒ (소설) ↑ 독자 ⇐	⇒ 독자 ↓ (소설) ⇐ ② 작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두 작품에 대하여 서영은의 다음과 같은 고백은 소설적 화답의 양식으로서의 독서가 가능함을 더욱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9) 안성수, “문학적 화답의 구조”(미발표된 논문).

50) 상계서에서 인용함.

...억쇠는 그분이 만들어낸 자기 운명의 화신이였다.~(생략)

7년 뒤, 내 소설 속에서도 자기 운명의 화신이 등장하게 되었다. '짐을 엮고 또 엮고 그러는 동안 자기 속에서 그 짐을 이기는 영원한 힘을 이끌어 낸 不死의 낙타'를 기르는 여자, 문자이다.~(생략)

나의 「먼 그대」는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싸움의 얘기다. 그 싸움은 대결을 통해 승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결을 통한 자기 확인, 자기 수행이다. 오직 그 상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자기 확인. 그 상대는 이미 연인이 아니라, 神이다. 「먼 그대」는 작품 「黃土記」에 대한 나의 소설적 화답이다.⁵¹⁾...

「먼 그대」가 구체적으로 「黃土記」의 무엇에 대한 화답의 글인가를 밝히는 것은, 두 작중인물이 보여주는 '운명관'을 보다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두 작품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黃土記」의 '비극적 운명관'에 대하여, 「먼 그대」는 '낙관적 운명관'을 그 화답의 의미로 제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비범한 한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타개하고자 하나, 타고난 비운 때문에 결국 그것에 승복하고 만다는 이야기이므로 인간의 '비극적 운명관'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평범한 한 인물이 초라한 현실과 밀려오는 고통을 딛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개척해 나가고 있으므로 인간의 '낙관적 운명관'을 상징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작품이 지향하는 '비극적, 낙관적 운명관'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양면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비극적 운명만을 타고 난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운명관을 지니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소설적 화답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보다 통합적 의미까지 아울러 제시하였다고 보아진다. 다만, 「黃土記」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상이 없이 결정론적인 운명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먼 그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비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51) 서영은(1993), 전계서, p. 47.

IV. 結 論

이 논문은 먼저, 「黃土記」와 「먼 그대」를 개별적 차원에서 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플롯 구조', '인물의 욕망 체계', '주제' 등의 분석을 통하여, 작중인물의 운명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두 소설에 나타난 운명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두 작품의 '運命觀 對比'와 '運命觀을 통한 和答의 意味'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 차원에서 탐구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黃土記」

- 1) 이 소설의 플롯 구조는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프롤로그와 그것을 한 편의 서사적 이야기로 형상화한 내부이야기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인공 역쇠와 득보는 자신의 한계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유 모를 싸움'도 해보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상징적 행위로써 자신들의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비극적 운명구조'를 보여준다.
- 2) 이 소설의 욕망 구조는 주인공 역쇠와 득보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욕망은 자신의 천부적인 힘을 마음껏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어하는 공통성이 있으나 둘 다 성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비범하게 태어난 주인공들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타개하지 못하고, 허무한 싸움질만 들이 벌이다가 자멸해 가는 인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비극적 운명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 3) 이 소설의 주제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비극적 운명'과 허무한 싸

움을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맺게 되는 등장인물들의 좌절된 삶을 통하여, 인간의 '비극적 운명관'을 보여준다.

2. 「먼 그대」

- 1) 이 소설의 플롯 구조는 주인공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있고[正],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反], 그 과정을 지나서 나타나는 결과의 상태[合]가 소설 전면에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주인공 문자는 본능적인 욕구를 지닌 '현실적 자아'와 그것과 정면 대결을 펼치는 '내적 자아'와의 갈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이상적 자아'의 세계로 끊임없이 초월해 나간다는 '변증법적 정신구조'를 보여준다.
- 2) 이 소설의 욕망 구조는 '이상적 자아의 실현'을 꿈꾸는 문자의 욕망이 주로 나타나면서, 부수적으로 '현실적 욕망의 달성'을 바라는 한수의 욕망이 그려져 있다. 전자의 욕망이 현실을 초월하여 이상적 세계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후자의 욕망은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속물적 욕망의 형태를 보여준다.
- 3) 이 소설의 주제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려는 주인공 문자의 자기 초극정신을 통하여, 인간의 '낙관적 운명관'을 보여준다.

3. 小說에 나타난 運命觀 對比

- 1) 「黃土記」의 주인공 역쇠는 비범한 인물로 자신의 불운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나,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타고난 운명의 굴레에 순응하는 존재로 형상화되

어 있다. 이것을 작가 김동리의 운명관과 관련시켜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인간은 숙명적으로 '비극적 운명'을 지닌 존재이며,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는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먼 그대」의 주인공 문자는 고통스런 현실과의 정면 대결을 통하여,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것 또한 작가 서영은의 운명관과 관련시켜 해석한다면, 우리의 인간은 주어진 현실적 조건을 뛰어 넘어, 자신의 '이상적 자아 세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운명관'을, 이 작품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3) 따라서 「黃土記」의 의미구조가 '순응적 운명관'을 보여준다면, 「먼 그대」는 '대결적 운명관'을 보여준다. 작가 서영은은 김동리의 「黃土記」를 읽고, 개인적인 화답의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이 「먼 그대」라고 밝혔는데, 그 화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두 운명관에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 두 운명관은 '작가와 독자', '독자와 작가', 또는 '작가와 작가'의 관계 속에서, 소설을 통해 주고받는 '문학적 화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



參考文獻

I. 자료

- 金東里. “黃土記”. 「韓國文學全集9」. 서울: 三星出版社, 1993.
徐永恩. “먼 그대”. 「韓國文學」. 제11권. 통권 115호. 서울: 韓國文學社, 1983.

II. 단행본

- 고려대학교 대학국어편찬실 엮음. 「언어와 표현」.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권영민. “아! 김동리 선생님”. 「文學思想」. 통권 273호.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95.
金東里. 「文學思想」. 創刊號.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2.
金炳翼. 「韓國文學의 意識」.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6.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서울: 宣明文化社, 1968.
_____. “金東里와 순수문학의 지향”. 「韓國現代小說史研究」. 서울: 民音社, 1984.
김윤식. “서영은론: 허무를 실천하는 섬세한 축수”. 「한국현대작가연구」.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91.
김치수. “소멸의 미학: 金東里의 「巫女圖」”. 「文學과 批評의 構造」.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4.
朴鍾浩. 「莊子 哲學」. 서울: 一志社, 1985.
방인태. “徐永恩論(1): 神話的 세계의 갈망”. 「韓國現代作家研究」. 서울: 民音社, 1989.
서영은. 「한 남자를 사랑했네」. 서울: 미학사, 1993.
金圭泰. 「韓國現代文學史」. 서울: 瑞文文庫, 1972.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概觀」. 서울: 正音社, 1964.
_____. 「韓國現代作家論」. 서울: 文明社, 1970.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서울: 螢雪出版社, 1975.
_____. “토속적 상황 설정과 한국 소설”. 「韓國 小說의 觀點: 천이두 평론집」.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_____. “虛構와 現實(上), 金東里論”. 「現代文學」. 9월호. 서울: (株)現代文學,

1978.

하윤금. “그레마스의 기호학”. 「구조주의」. 서울: 고려원, 1992.

III. 논문

金東俊. “金東里 小說 研究: 샤머니즘 계열의 작품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1989.

송백헌. “토속신의 미학과 원색적 인간상”. 「東里文學이 韓國文學에 미친 영향」. 中央大學校 藝術大學 文藝創作學科, 1979.

安成洙.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研究 試論”.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1989.

_____. “문학적 화답의 구조”(미발표 논문).

李甫永. “蓮花의 秘義”. 「東里文學研究」. 서라벌文學 8집. 서울: 서라벌藝術大學, 1973.

李惠子. “東里文學의 原型的 이미지 研究: 「巫女圖」, 「黃土記」, 「달」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1988.

鄭漢淑. “顯微鏡과 돋보기: 金東里 短篇小說에 대한 考察”. 「東里文學研究」. 서라벌文學 8집. 서울: 서라벌藝術大學, 1973.

趙春鎬. “金東里 「黃土記」論: 르네 지라르의 ‘欲望의 삼각형’ 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논문집」. 제5집. 대구한의과대학, 1987.

진영화. “김동리 단편소설의 구조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崔時漢. “現代小說의 構造詩學的 研究: 金東里 小說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西江大學校, 1980.

IV. 번역서

Duane Schultz 著. 「人間性格의 理解: 健康한 性格에 관한 諸接近」. 李祥雨·丁鍾鎭 共譯. 서울: 中央適性出版社, 1988.

N.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譯. 서울: 한길사, 1982.

볼프강 카이저. 「言語藝術作品論」. 金潤涉 譯. 서울: 大邦出版社, 1982.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about Outlooks on the Destiny in Novels

— Focusing on "Hwangto-gi" and "Meon Geudae" —

Han, Jeong-Seok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destiny about characters close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the plot,' 'the system of characters' desires,' 'the theme' which are dealt in "Hwangto-gi(황토기)" and "Meon Geudae(먼 그대)." And this analysis is done for each works.

Then, it is studied at the state of the combination with two novels how outlooks on the destiny are appeared in novel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wo outlooks on the destiny' and 'the meaning of a response through outlooks on the destiny' of two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oughly as follows.

1. "Hwangto-gi(황토기)"

(1) The structure of the plot in this novel shows 'the tragic structure of the destiny,' containing a prologue that hints the tragic destiny of a protagonist and a story that is revealed narratively for the prologue.

(2) The system of characters' desires is represented by Eoksoi(억쇠) and Deukbo(득보). Their ultimate desires have the similarity that they are eager to show their natural power freely to the world, but both of them fail to achieve their desires and end tragically.

(3) The theme of this novel shows 'the tragic destiny' of human through characters' frustrated lives in which characters struggle uncertainly against 'the tragic destiny' symboling certain absolute power but finally, they face the death.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7.

2. "Meon Geudae(먼 그대)"

(1) The structure of the plot in this novel shows 'dialectical structure of mentality' that means that the protagonist, Munja(문자), is going to transcend towards the world of more developed 'ideal self'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the actual self' which owns the instinctive desire and 'the internal self' which struggles against the actual self.

(2) The system of characters' desires draws the desire of Munja(문자) who dreams that she will realize 'the ideal self' and deals subordinately with the desire of Hansu(한수) who is eager to achieve 'the actual desire.' The desire of the former pursues the ideal world extremely, transcending the actuality and the desire of the latter shows the form of the worldly desire that sticks closely to the actuality.

(3) The theme of this novel tells 'the optimistic outlook on the destiny' of human though showing the transcendent spirit of Munja(문자) who hopes to reach the ideal state, trying to conquest herself continuously.

3. The comparison between outlooks on the destiny in novels

(1) The protagonist in "Hwangto-gi(황토기)", Eoksoi(억쇠), is formed as a character who is going to go beyond his unfortunate environment but fails to accomplish to the end and adapts himself to the inborn bridle of destiny in spite of his own extraordinariness. As this is interpreted in the outlook on the destiny of the writer, Kim, Dong-ri(김동리), this shows suggestively that human is a existence that possesses 'the tragic destiny' fatally and human can never be free from the destiny.

(2) The protagonist in "Meon geudae(먼그대)", Munja(문자), is the typical character who expands her own 'ideal self' and develops it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her painful actuality. As this is interpreted in the outlook on the destiny of the writer, Seo, Young-eun(서영은), this shows 'the optimistic outlook on the destiny that human conquets given actual condition and can reach 'the world of the ideal self' enough.

(3) Therefore, the structure of meaning in "Hwangto-gi(황토기)" presents 'the adaptive outlook on the destiny' while on the other "Meon Geudae(먼 그대)" shows 'the confrontationist outlook on the destiny.' The writer, Seo, Young-eun(서영은), said that she read "Hwangto-gi(황토기)" by Kim, Dong-ri(김동리) and she wrote "Meon Geudae(먼 그대)" as the personal response for his novel. Maybe, there is the contents about the response in these two outlooks on the destiny. And these outlooks on the destiny have the character of 'the literary response' that gives and takes in the relationship of 'a writer and a reader,' 'a reader and a writer' or 'a writer and a writer.'